

산들

| 퍼낸이, 퍼낸곳
한국기독교장로회 예가교회

| 주소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22-41
☎ 756-7707
Fax 756-7607

| 인터넷
<http://yega.org>

| 담임교역자
조익표

| 부교역자
장영진, 조영희

예가교회

예가교회는,
빅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새 가족으로 거듭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충만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족으로 성장한다.

금주의 말씀	2
중보기도	5
매일기도	6
가족소식	8
발에 감추인 보화	10
예가공지	12

“그리스도, 유일한 희망”

최근 5-6년 사이에 서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 이름하여 '빅히스토리' 또는 '빅스토리' 라는 자칭 '융합학문' 이다.

빅스토리는 이제는 인간의 문제를 협소한 인간역사가 아니라, 우주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자고 제안한다. 그래야만 인간은 자신을 더 큰 시각에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우주시대에 인간의 기술문명이 야기할 수 있는 공멸의 위험으로부터 인간 자신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 빅스토리는 빅뱅 이후의 우주로부터의 모든 이야기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수집하고 있다. 2010년에는 I BHA 창설을 기점으로, 유력한 인사들과 IT 부호들이 대거 가담하고 있어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새로운 권력의 탄생을 보는 느낌이며, 눈치 빠른 학문과 종교들은 그 아래로 과학기술의 옷을 입고 모여 들고 있다.

빅스토리는 인간은 거대한 우주의 역사 속에서 아주 미미한 존재이니 겸손해지라고 가르친다. 인간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니, 자연을 남용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인간을 민족이나 국가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분쟁의 씨가 되고 있으니, '인류' 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평화를 추구하자고 가르친다. 또한, 장차 인간 이상의 인공지능이 탄생할 것이고, 인공지능은 빅스토리로 인간을 대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속히

공존의 길을 찾지 않으면, 인공지능은 인간을 지구상에서 제거해야 할 대상 1호로 삼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런 교훈들은 기존의 권력들이 학문과 종교를 통해 제시한 것처럼, 나름의 구원론과 심판론을 갖추고 있으며, 베이비부머 이후의 과학기술 세대들이 열렬히 환호하며 모여드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권력이 기존의 권력과 경합하는 현상일 뿐, 빅스토리를 중심으로 한 권력이 승리를 한다고 해도, 인간의 가치나 삶은 나아지진 않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다수일 것이고, 새로운 권력이 선택한 소수만이 부와 권력을 독점할 것이며, 경쟁과 다툼도 계속될 것이다. 이는, 인간의 근본은 그대로이고, 다만 모자만 바꾸어 쓴 꼴이다.

성경은 사람이 '사랑하라' 는 말씀을 근본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사실상 무엇을 해도, 희망이 없다고 본다. 성경이 사람에게 거는 희망은, 그리고 세계에 거는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사는 존재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자녀들의 등장이다. 예가교회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로 사는 이들의 탄생을 희망을 걸고 살아왔다. 이 사순절기가, 예가교회에게는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리스도를 받고, 누리는 절기가 되도록 기도와 형제사랑에 집중하자. 그리스도만이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전히 어둠으로 덮여있을 세상의 유일한 빛이고, 희망이니 말이다.





■ 오늘 낭독한 요한1서 3장 11절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위적으로 번역하는 방식을 심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이는 3장 16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유



신명기	6 : 1 - 15
요한1서	3 : 11 - 24
요한복음서	13 : 31 - 35

일하게 받은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것을 당위, 즉 해야만 하는 것으로 바꾸어 버리면, 교회는 이념적인 집단이 될 것입니다. 이념적인 집단은 감시와 처벌로 생존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할 때 자유를 마시고, 사랑하지 않을 때 노예됨을 맞볼 것이라 가르치셨지만, 이념화된 사랑, 당위가 된 사랑은 그것을 뒤집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의 이념적 집단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념으로 바꾼 교회는 자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옥불 설교로 공포심을 조장하여 자기 검열을 강화하며, 중세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상호감시와 규제, 처벌의 법을 만들어서 통제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지금이야, 예가교회 같은 경우는 작은 공동체이고, 별 구속력도 없으니까, 마음에 안 들면 아무런 제약없이 떠나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한 일들은 교회가 로마제국을 비롯하여 서구를 권력으로 장악했을 때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받은 계명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못지 않게 당위의 법, 차별과 규제와 처벌의 법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할라카 처럼 613개도 아니고, 기껏 하나뿐인 계명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것도 ‘사랑’을 내용으로 하는 계명을 가지고 말입니다.

오늘 낭독한 요한1서 3장 11절의 헬라이어 본문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입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아가포멘 알렐루스)는 것입니다” 이 문장 안에 ‘해야만 한다’는 식의 표현 같은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는 3장 16절의 경우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본문도 아닌, 유일한 계명을 당위적인 명령으로 번역하는 일은 무지하거나 악의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에 먹물처럼 새겨지는 이념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는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이 될 때에 비로소 사랑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신약성경에서 ‘사랑’은 ‘받는 것’도 아니고, ‘해야만 하는 일’도 아닙니다. 사랑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나이고, 그 행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음소리와 함께 한 번 태어날 때에는 사랑하지 않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사랑하지 않는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존재의 본질입니다. 자연적인 존재는 그 심장에 ‘사랑’ 같은 것은 없습니다. 자연적인 존재가 심장에 갖고 있는 욕구는 생존과 번식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가 처음부터 자기 생존과 번식을 위해 경쟁하고, 다투어 왔다는 것을,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상식으로도 알 것입니다.

19세기에 들어서 인류는 과거보다는 빠른 속도로 외형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으로 증기기관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2차 산업혁명으로 전기로 작동하는 도구들이 등장해서 대량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퍼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의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는 3차 산업혁명기를 거쳐서, 이제는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해커, 메이커와 같은 낯선 표현들로 가득한 4차 산업혁명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그 상징적인 첫 출발의 해라고 떠들고 있고, 구글은 이를 기념하여 바둑왕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결을 통해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도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즘칠 새 전세계는 인공지능의 비약적 발전에 전율과 공포를 느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는 스마트라는 이름으로 인공지능의 초기모델들이 이미 많이 보급되어 있고, 인공지능 장치의 보급률은 급속도로 빨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학자들은 2045년에 인공지능과 인간이 결합된 새로운 종류의 인류가 출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 예상은 앞당겨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은 제조, 행정과 같은 단순업무 분야에서는 중간 관리직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수백만 아니 수천만 이상의 일자리가 인간보다 똑똑한 로봇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특히, 감정을 배제한, 이성이나 합리성과 같은 논리적 영역에서는 십수 년 내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앞지르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백과사전을 머리에 담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천재니 우등생이니 했지만, 지금은 그런 말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검색만 하면 위키백과를 통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인공지능은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기능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조합해서 제3의 새로운 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한 인간사회의 변화는 빈부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세계는 점점 심화된 생존경쟁의 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신문과 뉴스에서는 동유럽의 가난한 나라들을 보여주면서, 집 없는 도시의 빈민들이 땅 아래 하수구로 내려가 보일러 배관근처에서 집단을 이루며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컴퓨터, 로봇과 같은 신문명의 산물로 인해 발생한 산업폐기물을 자국에 들여오는 것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독가스가 흩어져 나오는 산업폐기물로 이루어진 남산만한 산들이 산맥을 형성하고 있는 곳에 더욱 가난한 사람들이 집성촌을 형성하며, 의료혜택도 받지 못한 채 병든 목숨, 짧은 목숨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피난한 난민들은 세상 여기저기를 떠돌다 길거리에서, 해변에서, 무인도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온 세상을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종말론이 있지만, 뉴스나 신문이 전하는 메시지들은 더욱 끔찍하고, 무서운 종말론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은 0.1퍼센트의 천국과 99.9퍼센트의 지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말론을 접한 사람들은 자기 생존을 위해 더욱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태도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태어난 그대로의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사회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이기적인 동물이고, 하나도 신성하거나 존귀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권력을 갖추어야만 신성하고,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 드리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첫 번째 탄생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자연적인 인간에 대해 너무나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으니, 더 이상 떠들 것도 없습니다. 자연적인 인간은 노예입니다. 그들은 돈의 노예이고, 권력의 노예이며, 죽음의 노예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 자체로 전쟁이고, 그 끝은 죽음입니다.

오늘 낭독한 요한복음서 5장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요5:39)

우리가 성경을 읽는 까닭은, 그 안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연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생명은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죽고, 다시 태어나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생명은, 기존의 자연적인 생명과는 전혀 다른 생명이며, 저는 이것을 두 번째 생명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생명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자기의 근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바로 두 번째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돈과 권력과 죽음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경쟁심이 아니라, 사랑을 자기의 심장으로 삼고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랑은 의무나 당위가 아니라, 자기의 존재이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두 번째 탄생 때부터 사랑하는 존재로 태어나서, 그 삶을 지켜내고,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삶과 피를 내주어, 하나님께서 내게 형제로 맡겨주신 사람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좋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살리는 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깁니다. 이는 당위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랑은 의무나 당위가 아니라, 자기의 존재이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두 번째 탄생 때부터 사랑하는 존재로 태어나서, 그 삶을 지켜내고,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삶과 피를 내주어, 하나님께서 내게 형제로 맡겨주신 사람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좋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살리는 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깁니다. 이는 당위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살리는 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깁니다. 이는 당위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아니고, 돈벼락이나 권력폭풍을 맞아서 명명거리고 살기 위해서도 아닌, 전혀 다른 종류의 생명, 인간이 선천적으로는 절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생명을 얻으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근본으로 하는 생명을 얻으려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마지막 식탁에서 자기의 존재, 즉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물려주셨다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예수님의 이름과 신분과 권세가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과 함께 제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읽게 되지만, 두 번째 다시 읽을 때에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나의 이야기로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누리셨던 생명을 받았습니 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고, 자기의 근본이 사랑인 생명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드릴 때마다 참여하는 성찬은, 예수님의 이름과 신분과 권세를 물려받는 자리입니다. 누가복음서 22장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식탁에서 제자들에게 왕권을 물려준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본다면, 오늘 여러분이 참여하는 성찬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그 왕권을 물려받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성찬이라는 자리는 예수님이 누리셨던 두 번째 생명을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두 번째 생명에 붙여진 명

칭입니다. 그 생명은 사랑을 기반으로 삼은 생명이고, 형제를 좋아하고, 형제를 섬기고, 대접함으로써 그 능력을 발휘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매주가 감격적이고, 행복한 자리입니다. 사순절이든 성찬이든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들은 그에게서 아무 것도 배우지 않고, 아무 것도 받지 않은 사람이, 무지 가운데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은 자연적인 목숨에 대해서는 별 욕심도 없고, 아쉬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목숨을 부지하려고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니라, 단 하루라도 예수님이 누리셨던 생명을 얻고, 누리려고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35세 이상 되신 여러분들보다는 짧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 때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산 기간은 마가복음에 따르면 고작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신 1년 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까? 100년을 살면 무엇입니까? 단 하루도 예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다면, 인생을 허비한 것 밖에 안되니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세상에는 늘 전쟁과 난리의 소문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소문에 휘둘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너는 '나를 따르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전쟁과 난리의 소문으로 가득합니다. 그야말로, 세상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여여합니다.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2천 년이나 지났지만, 교회는 아직도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출발선에서 벗어난 교회들은 제가 알고 있는 한 거

의 모두가 세상의 일부로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잘못 살면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빕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내용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사랑에 올인 한 삶'이라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누리신 생명을 누리는 길이며,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삶을 다할 때에는 뒤에 오는 형제들에게 우리가 받고, 누렸던 생명을 전해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 우리의 후배들을 한 길에서 묶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입니다. 오늘의 성찬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지키고, 풍성하게 누리서, 그것을 우리 다음의 후배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식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리셨던 생명을 받고, 풍성하게 누리는 일은,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일이며, 죽음아래 놓인 목숨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알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두 번째 생명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 가운데 다투며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기쁜 소식으로 전하십시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은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고도 그 영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기도와 형제를 좋아하는 일에 다시 집중하여 성령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 있기를 빕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랑과 기쁨을 키워갑니다



맑은 최영란: 온유님에게 밀반찬을 선물하고 코이노니아 벨리에서의 비전을 준비하여 만나겠습니다.

나무 하태용: 샘물님에게 감사 선물을 준비하여 믿음의 만남을 하겠습니다.

늘빛 김숙정: 장소 준비자인 독립군님을 도와 반찬을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샘물 박행수: 2주기 목표대로 일대일 만남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독립군 이창주: 샘물님에게 선물을 하겠습니다.

온유 유형미: 일대일 만남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카라 이희영: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 유랑님에게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즐거운 이한재: 요한님에게 과일과 감사 문자를 하겠습니다.

마르다 석순명: 등대님에게 서울 소식과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희은 박용제: 마르다님에게 직접 만든 디퓨저를 선물하겠습니다.

찬미 정현옥: 빌립님에게 감사 선물을 하겠습니다.

광야 김규동: 성실님에게 선물을 하겠습니다.

해 석재호: 새롬님에게 성경구절로 안부문자를 보내겠습니다.

모퉁이돌 이영교: 달빛님에게 감사문자와 성경구절을 보내겠습니다.

아모 박주은: 마리아님의 좋은 점, 예쁜 점을 발견하고 표현하겠습니다.

마리아 강수진: 아모님에게 아침기도 후 감사문자를 하겠습니다.

새롬 류정희: 해님에게 감사편지를 쓰고 선물을 하겠습니다.

달빛 김주영: 모퉁이돌님에게 만남일지를 미리 드리고 선물을 하겠습니다.

좋은 정상도: 광야님에게 감사문자와 반찬 선물을 하겠습니다.

빌립 이종진: 좋은님을 대접하겠습니다.

성실 신정아: 광야님에게 감사편지와 선물을 전하겠습니다.

바다 김진영: 좋은님과 믿음으로 즐거운 일대일 사귀어 갖겠습니다.

미리내 황호영: 가족에게 감사 문자를 하겠습니다.

드림 황현미: 2주기 장소준비자인 소망님을 격려하겠습니다.

진주 이인화: 1주기 사랑의 수고를 해준 사랑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소망 김강민: 가족들에게 감사 문자를 하고 장소준비를 즐겁게 하겠습니다.

사랑 최현숙: 뿌리님에서 선물을 하겠습니다.

에스더 권영아: 새로운 가족이 된 양현웅군에게 사귀의 문자를 하겠습니다.

은석 석순화: 용서와 새 출발 주간 가족모임을 잘 준비해서 참여하겠습니다.

생명 김성원: 한 주기 장소 준비자로 수고한 사랑님에게 선물을 하겠습니다.

초록 한춘희: 사랑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하겠습니다.

섬김 강수덕: 장소준비자의 도우미 역할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겠습니다.

씨앗 김은영: 섬김님에게 직업 정보를 알려주고 돕겠습니다.

뿌리 조민경: 생명님과 사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음 김진승: 시원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신나 류수옥: 한가온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푸른 김영남: 큰열매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불꽃 김강진: 유유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한가온 양세련: 신나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시원 박주현: 화음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종려주일



아침 기도

시편찬양

시편 118편 1-2, 19-24절
소리내어 천천히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라?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첫 기도

주님,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악마의 유혹을 이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희망 없는 땅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세례 안에서 나를 자녀로 부르신 소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기쁨을 누리며,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희망 없는 세상에서 새 희망의 증인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독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5-6/1-2/3-4
1-2/3-4/1-2
소리내어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주기도문

소리내어 천천히

하루의 계획 & 청원 기도

기도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일상계획과 말씀실천계획을 적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를 위한 청원을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증보기도

† 예가교회가 주중에는 사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에는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와,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조차 잘못하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스스로 괴롭히는 과거의 속박을 끊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미래를 향하여, 사랑하는 존재로 살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돈과 하나님 중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겨서, 가진 것을 나누게 하소서.

† 온 세계와 한국의 교회들이, 화해와 일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소서.

† 한국의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에 깊이 배인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분단의 고통을 평화적 통일로 치유할 수 있게 하소서.

† 예가교회의 교역자들이, 목숨을 다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능력을 주소서.

†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인도자들과 재정과 수고로 덕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기쁨을 주소서.

† 예가교회의 모든 활동이, 예수님의 새 가족과 새 교향의 꿈을 만들어 가는 일이 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필요들을 채워주소서.

† 예가교회의 가족모임이, 사랑을 행하며 꿈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되도록, 복 내려 주소서.

† 예가교회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지켜주소서.

† 예가 식구들이, 교회의 비전으로 하나되어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비송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마침 기도

주님, 지난밤 주님 안에서 편히 잠들게 하시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길을 걸을 때나, 차를 탈 때나,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되게 하소서. 아멘.



밤 기도

시편찬양

시편 118편 25-29절
소리내어 천천히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주님은 하나님이니,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나뭇가지로 축제의 단을 장식하고,
제단의 빨도 꾸며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 기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첫 기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줄 모릅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감사의 기도

기도 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하루를 돌아보아, 잘못된 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잘된 일에는 감사를 드리 는 기도를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기도

천천히, 내용을 따라

마침 기도

생명의 주님,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낮 동안 활기 있게 하신 주님, 자는 동안에도 지켜 주시어 편히 쉬게 하소서. 비오니, 오늘 이 밤도 나를 찾아오시어, 주님 은총의 힘으로 새벽에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족의 1분 스피치 & 사랑 이야기

소식가족

예배당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1주기 가족모임 장소를 준비하며 가족을 대접한 즐거움을 더 좋아하기 위해서 즐거움에게 어떤 선물이 좋을지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즐거움이 제일 좋아하는 음료를 선물하기로 했다, 가족모임에 가면서 음료를 준비해서 즐거움에게 전했다, 꼼꼼하고 섬세한 즐거움의 활약으로 가족모임이 늘 활기차다, 즐거움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커졌고 즐거움이 더 좋아졌다, 등대님을 좋아하기 위해서 카톡을 통해 소식을 전하였다, 성경 말씀을 묵상한 것을 담아 신앙적인 사귀이 되도록 하였다, 등대님을 응원하며 나도 같이 힘을 받아서 좋았다, 희은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간단한 간식과 과일을 준비해서 전했다, 더워드마운틴에서 소식가족이 믿음의 근본이 되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모임을 이루는데 노력하는 희은님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 함께 하는 가족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한 주였다, 사순절 기간에 피곤해하시는 유랑님을 위해 비타민 음료를 선물할 계획을 세웠다, 출시된

지 얼마 안 되어 종로5가에 가서 구입을 했고, 토요일에 전해드렸다, 유랑님이 드시고 기운이 나고 기분이 좋아질 생각에 기뻐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맑은가족

예배당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성찬준비를 위해 3일 전부터 고사리를 불리고 삶았다, 좀 더 신선한 재료를 준비하려고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곳에 들러 표고버섯도 사고 콩나물도 준비하였다, 가족들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성찬을 잘 준비하여서 기분이 좋았다, 성찬 준비를 하면서 가족 모두 함께 하여 교우들을 생각하며 하는 일들이 즐거웠다, 늘빛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매일 산책하며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직장에서의 일이 조금 안정되어 가족모임에 참여할 수 있었다, 성찬 준비의 어려움을 여러 교우들이 도와줘서 고맙웠다, 독립군님과 일대일 만남을 하였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현상에 놀라거나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꾸준히 정진하는 것만이 살 길임을 함께 나

누었다, 나무님이 손을 다쳐 택시를 타고 오가며 사랑하는 사랑으로 성장하고픈 기대를 나누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토요일 저녁에 협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매주 믿음의 사귀이를 가지자고 다짐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교우들에 대해 “진주님에게 선물하겠다, 마르다님에게 선물하겠다, 뿌리님에게 교회당 pc를 고쳐 기증하겠다, 성경통독회에 참여하는 학생부에게 간식을 준비하겠다, 식탁가족 간식을 준비를 하겠다”고 실천 사항을 나누었습니다.

사랑가족

예배당에서 8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한 달 동안 일 때문에 가족모임에 참여하지 못하여 가족들과 떨어져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 그러다 진주님의 방문으로 교회이야기도 듣고 이야기를 나누며 내가 참 좋은 사람들과 산다는 생각에 감사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찾아서 읽었다, 뿌리님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믿음의 이야기로만 사귀이를 가졌는데 그 동안 야근으로 수고한 뿌리님을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너는 하

나님의 자녀’ 라는 그 말한 마디에 기뻐하고 환한 미소를 지어줘서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기분이 좋았다, 뿌리님과 문자로 믿음을 나눌 때 좋은 마음을 주고 받아서 참 좋다, 고래님과 교회당에서 사귀이 시간을 가졌다, 고래님과 따로 사귀이 시간을 가지니 고래님의 힘든 상황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드림가족

예배당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미리내님에게 감사와 희망 주간의 성경구절로 만남을 기대하는 문자를 하였고 새벽기도회 후 교회당에서 만남을 가졌다, 가족모임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칭찬했다, 1주기를 감사하고 2주기를 희망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미리내님이 더 좋아지는 사귀이를 하였다, 그리고 감사의 선물로 몸에 좋고 맛있는 간식을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내서 고르는 시간이 좋았다, 새벽기도 때 은석님을 생각하며 호흡기도를 하고, 성경구절을 찾아서 감사문자를 하였다, 재미있는 이모티콘과 이사한 집에서 사용할 욕실 슬리퍼를 선물했다,



육실에 갈 때마다 기분 좋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선물을 고르면서 은석님에게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 다음에 선물해 드리고 싶은 목록도 생겨서 좋았다, 어울님과 서로 마주보면서 일대일 만남을 해서 좋았다, 어울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모습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드림님을 위한 중보 기도를 6회 하였고, 새벽 기도 후 일대일 만남을 하면서 믿음으로 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항상 밝은 미소와 사랑으로 가족들을 기쁘게 해주는 소망님과 이번 주 새벽기도 후 영화를 함께 볼 계획을 세웠으나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 한 주기를 마무리하며 믿음으로 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포도가족

예배당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달빛님에게 안부의 인사와 함께 성경구절을 전하였다, 달빛님에게 내가 찾은 성경구절을 전하려 하니 기분이 좋았다, 달빛님에게 안부의 인사를 하며 더 건강해지기를 바랐다,

해님을 좋아해서 좋아하는 과일을 간식으로 준비했다, 바자회 때 해님이 작업할 때 사용할 구슬을 사면서 열심히 만드는 모습을 상상하니 해님이 더 좋아졌다, 한 주기 동안 가족들을 장소준비자로 수고한 아모님에게 감사선물을 했다, 멀리 출장 중인 보라님에게 일대일 만남 양식에 맞추어 문자를 보냈다, 일대일 만남을 작성하는 시간에 보라님이 더 그리워졌다, 모퉁이돌님을 좋아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감기에 걸린 모퉁이돌님에게 홍차와 차를 선물하였다, 일대일 만남을 위해 기도하고 꼼꼼하게 적으면서 고맙고 기쁜 마음이 넘쳐서 좋았고, 여러 가지 차를 고르면서 모퉁이돌님을 생각하며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고 더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화음가족

예배당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유유님과 시간을 맞추어 보이스톡을 하면서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으니 무척 반가웠고, 6월 중순에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가 된다, 한가온님이 쿠키믹스와 쿠키틀을

필요로 한다는 말을 듣고 준비해서 집에 찾아가보니 오븐이 없어서 함께 웃었다, 한가온님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일대일 만남을 하는 즐거움이 쏠쏠했다, 큰열매님과 보이스톡을 하면서 올 한해 워크북을 열심히 작성하여 사는 실력을 향상시키자며 서로를 격려했다, 화음님에게 천식에 좋은 오미자를 우려내어 주었고, 이제 모두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아이들을 떠올리며 교복과 함께 신는 스타킹을 선물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실가족

회의실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바다님에게 감사 문자와 선물을 하기로 했다, 한 주기 동안 장소 준비로 수고한 것에 감사했고, 딸기를 선물했다, 성실님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였다, 성실님을 생각하며 성경을 읽고 함께 나누고 싶은 구절을 찾아 감사를 전했다, 1주기에 가족을 사랑으로 섬긴 성실님과 행복한 가족모임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 2주기에는 좋은 말과 행동으로 더 자주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살겠다, 광야님을 좋아해

서 대접할 계획을 세웠다, 목요일에 시간이 되어서 성경통독을 하고 난 뒤에 음료를 대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광야님이 새벽기도회 때 날마다 차를 태워 주어서 참 감사했다, 봄을 맞이하여 광야님에게 어울리는 산뜻한 니트를 선물하니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다, 빌립님을 좋아해서 과일을 선물했다, 늘 사랑하는 데 힘쓰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빌립님에게 감사하다, 무엇을 해도 좋은 찬미님에게 감사카드를 전하고 차를 대접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우선 전화만남으로 몸으로 부딪치며 살아가는 가족모임 이야기를 나누었고, 차를 대접하기 위해 회사 앞으로 찾아가 희망으로 2주기를 계획하며 인도자그룹의 팀웍이 더욱 좋아졌다, 가족모임 전에 성경구절을 찾아 감사 문자를 보내고, 감사 편지는 잊었다, 다음에는 계획한 것을 꼭 실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리아로 사는 기쁨

맑은가족 늘빛 김숙정



스케줄집회에서 ‘술선수범하는 마리아’라는 캐릭터로 살기로 결정하고는, 맑은가족 신년계획을 세울 때 1주기 가족모임의 음식준비자를 자원하여 가족들과 메뉴를 협의하였다. 무공해 배추로 만든 스키야끼, 초청자인 자유(김선우)를 위해 직접 식빵을 갈아서 튀긴 수제 돈까스, 감사와 희망 주간엔 가족들이 준비한 구절판 야채를 싸먹을 90장의 메밀전병, 갈치구이, 직접 담근 물김치와 배추김치, 집에서 퓌른 청국장, 일일이 다듬어 조리한 연근과 우엉조림 등 음식 하나 하나에 우리 가족들을 잘 먹이고 싶어 정성을 다해 미리 준비하여 샘물님의 도움을 받아 배낭에 싸 가지고 다니면서 즐거웠다.

지금 돌이켜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멀리서 가족모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할 일을 다했다는 느낌으로 살았다. 그러다가 맑은님이 직접 해보는 것을 강권하여 할 수 없이 장은 맑은님이 봐주고 음식만 만드는 것으로 하다가, 지금은 맑은님이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 감사한데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해서 대접하겠다는 단계에 있다. 좋은 쪽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맑은가족에게 감사하다.

새벽기도회도 내가 희망하여 첫 번째로 맑은가족이 참여하게 되었다. 교회당에서 일주일씩을 숙식하면서 아침마다 집에서 놀러온 누렁지와 밥을 끓여 함께 하는 교우

들을 대접하며 사귀어 가져 좋았다. 특히 함께 숙식했던 섬김님과 아침, 저녁으로 서로 대접하고 섬기는 가운데 사귀는 즐거움이 컸다. 평소에 아침을 안 먹던 교우들이 든든해 하며 출근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참 좋았다. 성경통독은 성경통독회에 참여하는 가족들이 보내주는 성경말씀을 읽으며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

1주기에 독립군님이 짝기도를 희망해서 내가 자원하여 매일 전화를 걸어 아침기도를 함께 하고 있는데, 나 또한 같은 시간에 기도하게 되니 하루를 계획하고 주간엔 맞는 성경말씀을 찾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그 말씀과 실천사항을 전하게 되어 감사하다. 스마트폰으로 성경 읽는 방법을 알게 되어 더욱 자주, 또 많이 성경을 읽으니 좋다.

신년집회에서 성찬대접 계획을 짰 때도 대장을 자원하여 처음으로 성찬대접 제안을 직접 작성하였다. 쇠고기를 넉넉하게 넣어 볶은 약고추장, 봄내음이 물씬 나는 취나물과 제주도산 고사리 외에 5종류의 재료를 넣은 비빔밥과 시원한 배추된장국을 냈다. 그 동안 항상 뒤에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만 하다가 지금은 혼자서 준비하고 조리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 잠도 못 이룰 지경이었는데, 많은 교우들이 도움을 주어 가볍고 즐겁게 집중할 수 있었다. 또 주일식사 후에는 교우들

이 맛있게 먹고 기분 좋게 나물을 싸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니 피로가 싹 사라졌다.

가족모임에서의 역할은 회계이다. 수첩에 꼼꼼하게 기록한 입출금 내역을 샘물님의 도움을 받아 엑셀파일로 입력하여 문서로 매주 보고하고 있다. 가족모임은 언제나 즐겁다. 이번에 예비인도자를 맡은 나무님이 늦은 시간이라도 가족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보는 것도, 다시 합류한 은유님의 표정이 밝아지고 모든 모임에 감사하며 참여하는 것도 참 기쁘고 감사하다.

술선수범하는 마리아로 살면서 하면 되는 것을, 또 하고 나면 그 기쁨과 감사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1주기이다. 이렇게 몸으로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 기쁨과 감사를 누리다 보니, 나를 많이 배려해 준 예전 가족이 생각나 대접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시간을 못 맞춰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봄에는 꼭 실행하여 사랑하며 사는 나의 삶을 전하며 감사를 표현하겠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명화 이정우

2016년 새로운 기획으로 만나고 싶었던 그 달의 화제의 인물을 선정하여 소개합니다. 3월에는 지난 겨울, 대기명당의 반장을 맡아 월삽을 하고 14명의 대부대를 이끌고 미얀마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명화 이정우님을 만났습니다.



성경통독을 마치고 나온 명화님에게 편 집부 2016년 새로운 코너인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주인공이라는 말을 전하며 식사시간을 포함해서 2시간 가량의 시간을 내달라고 요청하였다. 명화님이 선택한 숙대 근처 퓨전 일식집에서 만나 명화님이 좋아하는 우동이 같이 나오는 모듬초밥과 엄청난 양의 캘리포니아롤을 함께 먹으며, 만나고 싶었던 명화님과 가볍게 사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본론에 들어가기 위해 찻집을 찾으니 명화님이 아이스크림 쿠폰으로 대접하겠다고 한다.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앞에 두고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명화'라는 새 이름은 누가 지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좋은 그림을 보는 것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제가 호처럼 생각해서 지었습니다. 그럼 좋아하는 화가는 누구인지-다채로운 색채를 쓰는 프란시스코 고야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팝아트의 앤디워홀과 키스해링의 작품이 단순하게 몇 가지 색으로 표현되어 강렬한 느낌이 들어 좋다고 한다. 역시 어른이 되어서도 그림 그리는 일을 하고 싶다는 명화님답게 그림 이야기를 하니 눈빛이 반짝인다.

옆에 그림은 명화님이 여행 중에 주위 풍경을 스케치한 것이다.

다음은 편집부에서 명화님을 이번 달의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물로 선정하고 고

른 질문들이다.

1. 대기명당 반장이 되기 전과 후의 차이점은-우선 직접 해 보니까 전직 반장들의 고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나도 하지 않으면서 불만이 있었고, 나는 잘 해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는데, 특히 이번 여행에서 14명의 의견을 조율하고 계획이 틀어졌을 때 순발력 있게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전반장이었던 고백(유지호)의 도움을 받으면서 고백과 친해지고,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2. 어떤 선배가 되고 싶은가-우선 내가 하기로 한 약속은 잘 지켜서 모범을 보이는 선배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야 동생들이 따르고 위계질서가 잘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3. 미얀마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온천을 즐기고 돌아가던 길에, 자전거 체인이 빠져 내 손은 물론이고 고백, 온새미로(양동우)의 손까지 기름범벅이 되도록 고쳐보았으나 실패해 낙오하였습니다. 온새미로가 공사관에서 주운 골판지에 체인기름으로 써준 'HELP'를 들고 서 있는데 트럭을 타고 가던 현지인이 발벗고 나서서 근처 가게와 지나가던 다른 트럭의 연장을 빌려 자전거를 수리하고, 대기명당 합류지점까지 태워 주었습니다. 당황스러울 때 열심히 도와준 착한 미얀마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대기명당으로 통 크고, 당당하고, 밝게 성장하고 있는 명화님과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예가 공지

1.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이 전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형제를 좋아하는 삶으로 교회를 세우고,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주간으로 지냅니다.

2. 오늘 예배 후에는 부활주일을 준비하며, 가족모임 및 부서별로 교회당 구석청소를 합니다.

3. 이번 주 금요일에는 거룩한 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밖에 없는 예배이니 모두 시간을 내어 참여 바랍니다. 저녁 8시에 시작이니, 15분 전에 예배실에 입실해 주십시오.

4. 목요기도회는 사순절기 중에는 사순절 집회로 대체됩니다. 다음 목요기도회는 3월 31일입니다.

5. 101반 37기는 4월 15일(금) 저녁 8시에 첫 모임을 갖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으니, 초청장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초청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사순절기 집회가 진행 중입니다.

1) 새벽기도회: 매주 화, 수, 목, 금요일 새벽 5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포도가족이 참여합니다.

2) 성경통독회: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성경통독을 합니다.

통독회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3) 거룩한 금요일 예배: 3월 25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드립니다.

4) 사랑의 금식: 사순절기에는 사랑의 금식을 하고, 매주 모아 화해의 헌금으로 드립니다. 사랑의 금식표는 게시판에 있으니, 각자 신청하고 실천합시다.

7.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는 감사헌금을 준비하여 예배에 참여합니다. 부활주일에는 성찬대접을 맡은 가족 외에도, 모든 가족이 한 가지씩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합니다.

8. 거룩한 금요일 예배위원은 맑은, 좋은 날입니다. 부활주일 예배위원은 드림, 마르다님입니다. 부활주일 배찬은 교우배찬으로 갖습니다. 배찬위원은 성실, 사랑, 소망님입니다. 예배위원과 배찬위원은 공지가 나가면, 예배의 뜻을 새기며 기도와 형제를 좋아하는 삶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식탁은 청년부가 대접합니다. 3월 봉헌위원은 늘빛님입니다.

날짜 성경읽기

날짜	성경읽기
월	역대지하 12장 ~역대지하 19장
화	역대지하 20장 ~역대지하 27장
수	역대지하 28장 ~역대지하 33장
목	역대지하 34장 ~에스라기 4장
금	에스라기 5장 ~에스라기 10장
토	느헤미야기 1장 ~느헤미야기 8장

* 소식지의 통독표를 따라 읽으면 한 해에 1독 이상을 하게 됩니다.

* 읽고 난 후 교훈을 1개 적고, 교훈에 따라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1개 적은 후, 그날에 실천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바로 순종이며, 하나님 나라의 누룩과 같아서 비록 작지만 우리의 삶을 모두 변화시킵니다.

* 예배를 준비하여 드립니다. 예배준비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내가 교우들을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